

“현대중공업, 조선사의 퓨처빌더로 거듭날것”

〈미래 개척자〉

세계 최초 대양횡단 자율운항 계획
물류 혁신·해양사고 저감 등 기대
그린수소운반선 개발 계획도 밝혀

“지난 50년 세계 1위 shipbuilder(조선사)로 성장한 현대중공업그룹은 인류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퓨처 빌더(미래 개척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대표가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2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비전으로 ‘퓨처 빌더’를 제시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가 3세인 정 대표는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에 선임되었으며, 이날 국내외 기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글로벌 데뷔 무대를 가졌다.

●자율운항 기술 세계시장 경쟁력 가질 것

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가 성장하는데 토대를 구축해 온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난 50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가을 50년은 세계 최고의 퓨처 빌더가 되어 더 지속가능하고 더 똑똑하며 그리고 더 포용적인,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CES2022를 통해 선보인 자율운항기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대표는 “자율운항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양 모빌리티는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자율운항기술이 물류 혁신, 해양 사고의 위험 저감, 해양개발 가능성 향상 등 안전한 바다를 꿈꾸는 인류의 꿈을 이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CES 2022’ 현장에서 개최된 현대중공업그룹 프레스컨퍼런스에서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대표가 그룹의 미래비전인 ‘퓨처 빌더’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중공업그룹

자율운항기술의 중심에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 회사 ‘아비커스’가 있다. 아비커스는 바이킹의 어원인 아비커(Avviker)에서 따왔으며, 자율운항 분야의 개척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요경 아비커스 엔지니어는 아비커스의 자율운항기술에 대해 “해상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해상물류 및 해양 자원 개발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기술”이라고 소개하며 “완전 자

율운항해를 통해 가장 안전하고 지능적인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글로벌 자율운항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현대중공업은 올 1분기까지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으로 대형선박의 대양횡단 항해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 자율주행 상용화와 관련해 법규가 마련되지 않는 등 제도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정 대표는 “대형선박은 국제해사기구

(IMO) 법의 적용을 받지만, 아직 법규가 없는 상황”이라며 “레저보트 및 소형 선박은 관리기관이 없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그린수소 생산플랜트 구축

이날 행사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정기선 대표를 시작으로 아비커스의 주요 경 엔지니어, 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미래기술연구원장, 클루인사이트의 마이클 류 전략총괄이사 순으로 퓨처 빌더 관련 주제별 비전과 목표를 발표했다.

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미래기술연구원장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양수소 밸류체인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해양수소 사업의 가능성을 높여줄 핵심기술로 그린수소 생산기술과 액화수소 운반선을 제시했으며, 현대중공업그룹은 2025년까지 100MW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플랜트 구축, 세계 최초의 2만m³(입방미터)급 수소운반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그룹의 빅데이터 기반 장비관리 솔루션 전문 개발사인 클루인사이트의 마이클 류 전략총괄이사는 지능형 로보틱스 기술이 구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 건설현장의 모습을 선보였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는 건설현장의 무인화를 목표로 스마트 건설 로봇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2025년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로보틱스도 산업용로봇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류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해 줄 F&B, 방역 등 다양한 서비스로봇을 출시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SK지오센트릭 - 美 퓨어사이클 울산에 1차 첫 재생PP 공장 건설

페폴리프로필렌 재활용 본격화...탄소중립 앞장

SK지오센트릭이 페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함께 울산시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주요 조건에 합의하며 친환경 화학 회사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SK이노베이션은 김준 부회장, SK지오센트릭 강동훈 그린비즈 추진 그룹장과 미국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 마이크 오트워스 CEO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2에서 만나 울산에 폴리프로필렌(PP) 페플라스틱 재활용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주요 조인합의서(HOA)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HOA 체결로 울산에 아시아 최초의 재생 PP 공장을 만든다. 올해 안에 착공해 2024년 완공 예정이다. 해당 공장은 페플라스틱 연 6만 톤 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지며, SK지오센트릭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재생PP를 국내 독점 판매하게 된다.

양사는 지난해 8월 아시아 지역 내 PP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이번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사업 확대의 구체적 결실을 맺었다.

PP는 자동차 내장재, 가전제품, 식품 포장용기, 장난감, 생활용품 등에 다양한 색과 형태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로 전체 플라스틱 수요의 25%를 차지한다. PP는 다른 소재와 첨가제를 섞어 사용하는 특성상 기존의 물리적 재활용 방법으로는 냄새, 색, 불순물 등 제거가 어려워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퓨어사이클은 솔벤트를 활용해 페플라스틱에서 오염 물질과 냄새, 색을 제거한 초고순도 재생 폴리프로필렌을 뽑아내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오하이오주, 조지아주에도 공장을 설립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환경 규제로 플라스틱 재생수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약 2000만 톤 이상의 재생 PP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SK이노베이션이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넷제로)을 실행하는데 있어 배터리 사업과 함께 SK지오센트릭이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혁신함과 동시에 친환경 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LG화학, 세계 최대 배터리 양극재 공장 짓는다

구미시 6만m² 부지에 5000억 투자
매년 전기차 50만대분 배터리 생산

LG화학이 급성장하는 배터리 소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구미시에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

LG화학은 11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구미컨벤션센터에서 구미형 일자리 모델이 적용되는 구미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이학영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

이 참석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배터리의 용량, 수명 등 주요 성능을 결정한다.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과 함께 배터리의 4대 소재로 불린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양극재 수요는 지난해 99만 톤에서 2030년 605만 톤으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G화학은 2025년까지 구미시 국가산업 5단지 내 6만여m² 부지에 약 5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연간 고성능 순수 전기차(EV, 500km 주행 가능) 약 50만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에 착공한 구미 공장은 LG화학이 집



LG화학은 2025년까지 구미시 국가산업 5단지 내에 약 5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 연간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50만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LG화학 구미 양극재공장 조감도. 사진제공 | LG화학

중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 전용 라인으로 구축된다. NCMA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니켈 함량을 90% 수준으로 늘리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알루미늄을 적용해 배터리 안정성과 출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LG화학은 양극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현재 8만 톤에서 2026년 26만 톤으로 확대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코발

트 프리 기술 및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단결정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다.

신학철 LG화학 CEO 부회장은 “구미 공장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설비를 투자해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소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LG화학의 미래 성장동력을 가속화하는 핵심 기지 역할을 강화해 지속 성장하는 차별화된 비즈니스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12일(수) 음력: 12월 10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성급하게 나서지 말라. 장래를 봐서 거액에 투자하라. 오늘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라.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드,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울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재미 본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변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기의 정신이 필요하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오늘의 날씨

서울	0/20	인천	0/20	춘천	0/20
	-12 -3		-16 -2		-11 -3
강릉	0/20	대전	20/20	전주	20/20
	-7 4		-11 1		-7 1
광주	60/30	대구	0/20	부산	0/20
	-5 2		-9 2		-5 5
창원	0/20	제주	60/3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7 4		2 5	날씨	최저 최고온도